



인피언컨설팅 인프라팀

정보보호의 미래를 향해

가끔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정보보호 담당자의 입에서 어떻게 정보보호를 잘 할 수 있는지 질문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론대로 했지만 그 해답을 쉽게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해답은 어느 누구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다만 해답으로 가는 정석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정보보호 업무를 단순히 '이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일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석을 오늘 소개할 인피언컨설팅 인프라팀이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글 · 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웹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많은 업무들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를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처럼 다양한 보안사고가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서비스 혹은 솔루션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즉, 정보보호라는 것이 이제는 e-비즈니스의 중요한 한 요소로 자리잡게 됐다는 얘기다. 보험 등 금융업계의 IT 솔루션 전문 개발기업 인피언컨설팅의 이름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도 정보보호라는 화두가 논의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서비스와 솔루션을 특별하게

“2001년 삼성생명으로부터 분사해 지금까지 금융업계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는 인피언컨설팅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올 수 있었던 원인은 금융업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IT 솔루션 개발기업이라는 사실과 함께 정보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인피언컨설팅 인프라팀 최병훈 과장은 정보보호가 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보호가 일반 기업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IT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소위 ‘마인드’를 갖춘 기업은 분명 차별화될 수 있음을 인피언컨설팅은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IT 환경에서는 단순히 관련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라는 최 과장은 보안은 기본이자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한다. 특히, 인피언컨설팅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성만큼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반문하는 최 과장은 정보보호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한다.

"나 자신을 알라"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남다른 인피언컨설팅의 보안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안 프로세스의 정립과 개선 노력이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들이 이미 각 기업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기업 내부적으로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과 개선, 즉 관리적 차원의 보안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최 과장은 관리적 차원에 대한 인피언컨설팅만의 해답을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이라는 용어로 제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ITSM 활동은 업무 프로세스에 보안 프로세스를 접목시켜 계량화함으로써 보안의 취약점과 강화요소 등을 보안 성숙도로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총 63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안 성숙도 항목은 사내 직원

들이 사고 대응절차나 업무 처리 시 필요한 보안 프로세스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은 1~2차례의 점검과 테스트만으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월 단위의 지속적인 보안 작업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보안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접목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업무 중 보안이 취약한 요소는 무엇이고, 또 왜 취약한지 알고 있어야 해요. 문제점 없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는 노력이 필요하죠"라는 최 과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 보안 성숙도 모델을 통해 인피언컨설팅만의 보안수준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항상 기대치만큼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내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보안규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이들 인프라팀에게는 최대 관심사가 된다. "가령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이 과정에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때문에 보안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준수하느냐와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최 과장은 그런 의미에서 정보보호는 시작만 있을 뿐 끝은 없다고 한다.

"잘 된 보안, 그만큼 성과도 있어야죠"

"보안 프로세스 정립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뿌리 없는 식물의 성장과도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 보안활동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죠. 기준과 목표를 갖게 하는 것. 보안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최 과장. 그는 최근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트렌드를 감안해 볼 때, 보안 프로세스의 정립은 정보보호의 KPI, 즉 정보보호 분야의 성과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과장은 덧붙인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으로부터 외면받아 왔던 정보보호 분야가 최근 성과관리 개념을 통해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피언컨설팅은 보안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보안성과관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인피언컨설팅에서는 임원진부터 정보보호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인프라팀은 구성원들에게 단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이유와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라는 최 과장의 말 속에서 기업이 단순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이윤창출'을 위해 정보보호 활동을 펼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S**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대비는 저희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올해에는 업무 프로세스 속에 정보보호 요소를 포함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해요." 인피언컨설팅 인프라팀 최병훈 과장은 보안 프로세스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